

이흥재의 세상만사



논설고문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 맑은 일에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서 잇속에만 마음을 둘 때 쓰는 표현이다. 여기서의 ‘잿밥’을 ‘젓밥’이라고 잘못 쓰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러나 잿밥(糶)은 불공을 드릴 때 부처 앞에 놓는 밥이니 제사를 지내기 위해 차려 놓는 잿밥(祭)과는 다르다. 재(齎)는 성대한 불공이나 죽은 이의 낫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불교의식을 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사십구재’(四十九齋)도 사람이 죽은 지 49일 되는 날에 지내는 천도재(薦度齋)의 하나다. 잿밥을 굳이 잿밥으로 쓰고 싶다면 ‘제사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라고 하면 된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스님들의 선거에 ‘돈 봉투’가 오가고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다반사(茶飯事)인 모양이다. 모두 잿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우리나라 최고의 선승으로 일컬어지는 송담(松潭) 스님이 최근 조계종을 탈퇴하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한다.

송담 스님이 누구인가. ‘남 진제 북 송담’이라 해서 조계종 중진인 진제(眞際) 스님과 함께 최고의 존경을 받는 불교계 어른 아닌가. 그런 스님이 갑자기 조계종 탈퇴 선언을

한 것은 용주사 주지 선거 때문이다. 문중이 화합해 주지를 추대하려고 타일렀지만 말을 듣지 않아 크게 낙담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닭 벼슬만도 못하다는 중 벼슬’에 매달리는 추태를 더 이상 볼 수 없어 88세 노선사가 평생 지켜온 종단을 떠날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존재 의의도 찾기 힘든 야당

그러나 무엄하게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란 속담을 떠올린 것은 그 때문이 아니다. 요즘 야당의 꼬락서니와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탈당 해프닝을 보면서다. 중이 싫다고 절이 떠날 수가 없었지만 운동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의원들 사이에서 오죽했으면 절을 떠나겠다는 탈당 카드를 내밀었을까.

하지만 지금처럼 야당이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박 위원장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 세월호법 관련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그동안의 강경 이미지를 내려놓기 위해 너무 서두른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언젠가 박지원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박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박 의원은 박 위원장의 고집과 소신에 대해 ‘허를 내두를 정도’라 했다. 당시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찬성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박 위원장이 끝까지 반대하더라는 것이었다. ‘재벌 도와주기 아니냐’는 명분이 집착하면서.

사실 일반인에게 비치는 박 위원장의 이미지는 그리 부드럽지 못했다. 아마도 그녀는 그런 걸 의식했던 모양이다. 세월호법을 유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두 차례나 여당에 달력 합의해 준 것도 강경 투쟁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당내 강경파의 역리(逆鱗)를 건드린 꼴이 되고 말았다. 당은 그녀에게 국민 공감 혁신위원장이라는 명함을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국민 반감’뿐이었다.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도 실패로 끝났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정치세신특위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나 애초부터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이를 묵인했던 문재인 의원의 어정쩡한 태도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 그룹의 좌장이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사태를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박 위원장은 나흘간 이어진 집거를 끝내고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

다. 그동안 당을 분당(分黨) 위기로까지 내몰았던 탈당 카드를 접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 사이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들으려면 듣고 안 들으려면 말라는 식으로 야당을 압박했다. 오죽했으면 새누리당의 한 의원까지 나서서 “동냥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고 했을까.

지겨운 계파 싸움 이제 그만

이런 상황이 벌써부터 야당의 앞날이 험난해 보이는데 5선의 문희상 의원이 어제 위기의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 구원투수로 재등판했다. 이날 열린 원로중진 연석회의에서 문 의원은 1년 4개월 만에 또 한 번 당을 재정비해야 하는 임시 당 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나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원장으로 모신들 무슨 뽕짝한 수가 있겠느냐는 자조(自嘲)의 소리도 없지 않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친노무현계, 김한길계, 정세균계, 구민주계, 486계 등 5~6개의 계

파가 내년 초 열릴 예정인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차례에 ‘갈라서자’며 분당설까지 나온 바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지리멸렬(支離滅裂)한 모습을 보일 바에는 차라리 쪼개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탈턴트 이하의 외삼촌이며 ‘겉은 장비, 속은 조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문 위원장. 그는 과연 10%대의 지지율로 허덕이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날개 없는 추락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잃어버린 야당으로서 존재의의를 되찾게 할 수 있을까.

요즘처럼 야당이 무력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야당의 기능 정지는 곧바로 정치의 기능 정지로 대한민국의 기능이 마비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살기죽을 벗겨내고 뼈를 깎는 혁신(革新)을 통해 당을 회생시켜야 할 무거운 짐이 그에게 주어진 셈이다.

중요한 것은 당의 회생 과정에서 이념이나 선순 혹은 계파 간 안배로 그저 통합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여론과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당내 권력투쟁과 개인 정치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희망이 없다. 잿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최소한 염불하는 시늉이라도 해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광주·전남 아시안게임 유망주

도마神 양학선·윙크보이 이용대 ‘간판선수’ ‘골든데이’는 28일

양궁·볼링·배드민턴·골프 등 8개 금 쏟아질 듯

광주, 25종목 47명·전남, 27종목 53명 출전

‘볼링’ 최복음 3관왕 예약·육상 김덕현 2관왕 자신

‘도마의 신’ 양학선, ‘한국 육상의 간판’ 김덕현, ‘윙크 보이’ 이용대, ‘볼링 천재’ 최복음·박종우, ‘신궁’ 주현정·이특영, ‘한국 축구의 기대주’ 이종호, ‘메치기 고수’ 김성연, ‘퍼팅의 귀재’ 김영웅, ‘여자 핸드볼의 자존심’ 김은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빛 활약을 기대되는 광주·전남의 영웅들이다.

18일 광주시·전남도 체육회에 따르면 19일부터 16일간 인천에서 펼쳐지는 ‘제17회 인천 아시안경기대회’에 광주·전남 소속(출신) 선수 82명과 임원 18명 등 총 100명이 참가한다. 광주 선수단은 25개 종목에서 총 47명(임원 11명, 선수 36명)이, 전남은 27개 종목에서 53명(임원 7명, 선수 46명)이 된다.

가장 주목되는 선수는 ‘도마의 신’ 양학선(22·한국체대·광주 출신)이다. 양학선은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양학선은 이번 대회에

서 신기술 ‘양학선2’(도마를 옆으로 쪼고 세 바퀴 반 비틀기)를 선보인다. 양학선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양학선2’를 성공시켜 공인받겠다”고 자신했다.

‘한국 육상의 간판’ 김덕현(30·광주시청·보성 출신)도 금메달을 예약했다. 주종목인 세단뛰기는 물론 멀리뛰기까지 2관왕을 노린다. 올들어 중별선수권, KBS배, 육상선수권대회 등 잇달아 3연패를 달성한 탓에 자신감이 총만하다.

‘돌아온 윙크보이’ 이용대(26·삼성전기·화순 출신)는 파트너 유연성(국군체육부대)과 함께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이·유 조는 지난 6월 3주 간 일본 오픈, 인도네시아 오픈, 호주 오픈 등 3연속 국제대회 우승컵을 쓸어담았다. 인천아시안게임을 1개월 앞두고 세계랭킹 1위를 찍었다.

‘볼링 천재’ 최복음(27·광양시청)은 최소 3관왕을 자신하고 있다. 안정적인



양학선



주현정



이용대

자세와 정확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스터즈, 개인전, 개인종합, 2인조, 3인조, 5인조전 모두 출전에 금빛 스트라이크를 작렬할 계획이다.

여자 볼링의 선두주자인 이영승(18·한국체대·곡성 출신)도 최소한 금 1개 이상을 자신하고 있다. 역대 여자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된 이영승은 부모가 현재 곡성에서 볼링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터여서 타고난 감각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축구 이종호·안용우·김영욱과 야구 양현종·나지완·강정호·임창용·나성범·이태양도 금메달 수확에 동참한다.

‘신궁’ 주현정(32·현대모비스·곡성 출신)과 이특영(25·광주시청·화순 출신)은 아시안게임 양궁 단체전 5연패에 도전한다.

만 16살의 ‘골프 신동’ 김영웅(함평골프고)도 남자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인천=박정욱기자 jwpark@

선다.

광주·전남 선수들의 골든데이는 28일이다. 이날 하루 양궁, 볼링, 배드민턴, 골프, 야구 등에서 금메달 8개를 쏟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광주시·전남도 체육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은 20개 이상 금메달을 수확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선수들의 ‘금맥 캐기’ 시나리오는 대회 셋째날인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오후 9시20분께 ‘한국 여자우도의 기대주’ 김성연이 고향에 첫 금메달 소식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 출신으로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뛰고 있는 김성연은 여자 -70kg에서 호쾌한 ‘금빛 업어치기’를 선보인다는 각오다.

23일에는 ‘볼링 천재’ 최복음과 박종우가 금빛 스트라이크에 시동을 건다. 이들은 최소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다는 목표다. 배드민턴의 이용대도 복식 단체전에 출전해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을 노린다. 펜싱의 박경두는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금빛 찌르기를 시도한다.

24일과 25일에는 한국 체조의 간판스타 양학선이 마루와 링, 도마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

광주·전남 선수들의 골든데이는 28일이다. 이날 하루 양궁, 볼링, 배드민턴, 골프, 야구 등에서 금메달 8개를 쏟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여자 양궁의 주현정과 이특영은 나란히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빛 활약을 당긴다. 볼링에서는 최복음·박종우·이영승이 남녀 3인조전에 동반 출전에 금빛 스트라이크를 작렬할 계획이다.

골프에서도 금메달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공태현과 김영웅은 남자 개인·단체전에서, 박결은 여자 개인·단체전에서 우승을 노린다. 배드민턴 복식에서는 이용대가 유연성과 조를 이뤄 금메달 수확에 나선다. 나지완·양현종·임창용·강정호·나성범·이태양 등은 야구에서 ‘아시아 최강’을 노린다.

육상의 김덕현은 멀리뛰기(30일)와 세단뛰기(10월2일)에서 금빛 도약을 시도한다.

다음달 1일에는 김은아·김선화가 여자 핸드볼에서 ‘우승순’의 기적을 재현한다는 각오다. 2일에는 전남드래곤즈의 이종호·안용우·김영욱 3인방이 축구에서 금맥 캐기에 나선다. /인천=박정욱기자 jwpark@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1110-증-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 항노화치료 | 기미클리닉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① 리프팅레이저: 볼세라, 써미지, 에너젯 복합치료
② 에드를레이저: 스쿠스원, 아이슬, 브이빔, 프락셀
③ 세오레이저: 켈로맥스, 디오모우즈
④ 피부 미백: 쿨미나스원, 켈로맥스, 루비레이저
⑤ 주름·흉터: 프락셀 듀얼, 울트라펄스싱크로, 프랙토라, 인트라셀, 프락셀 세너
⑥ 모공: 변티지, 프락셀 5종
⑦ 비만: 네오울트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테틱: 385-0009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운임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